금속
원주지회
〈14기 – 제15호〉

함께하는 길

md.kmwu.kr

산별 전환 정착!!
안정적 노동조합!!
조합원 권익향상!!

■ 발행일: 2026년 10월 13일 ■ 전화: (033)730-7871 ■ 발행인: 금속노조 만도지부 원주지회장 김택수

우리의 단결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!
2026년 임·단협 승리!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!

존경하는 원주지회 조합원 동지 여러분!
2026년 임·단협 승리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**투쟁지침에 따른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집행부를 믿고 묵묵히 함께해 주시는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** 동지들의 믿음과 단결이 노동조합의 힘입니다. 집행부는 그 믿음에 반드시 투쟁의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.

그러나 지금 현장에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**일부 생산관리과장과 회사 관계자들이 금속노조 조합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.**

회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!
교섭장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는 책임 있게 답하지 않으면서,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의 단결을 흔들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. **조합원을 흔들 시간에 교섭에 성실히 임하십시오!**

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조직을 와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 **관련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고,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.**

아울러 사무직 노동자의 무리한 현장 투입도 심각한 문제입니다. **충분한 교육과 숙련 없이 생산설비와 작업공정에 투입될 경우 설비 오조작, 끼임·충돌 등 안전사고는 물론 품질 불량과 설비 파손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현장 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.**

회사는 무리한 현장 투입을 중단하고, **사무직 노동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합니다.**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투쟁을 압박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!

조합원 동지 여러분!
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. **나 혼자 잘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.** 오늘 우리가 물러서고 단결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.

회사의 회유와 압박에 흔들려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무노조로 남겠다는 선택은 개인의 자유의사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**함께해 온 동지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공동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.** 지금 필요한 것은 혼자만의 안위를 위한 이탈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함께 버텨내는 단결입니다. 주위의 동지들을 믿고 당당하게 견뎌냅시다!

집행부는 동지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. **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, 투쟁의 맨 앞에서 책임지겠습니다.** 조합원의 권리와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, 동지들의 믿음을 반드시 교섭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.

조합원 동지 여러분! 흔들리지 마십시오! 동료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! **회사의 어떠한 회유와 압박에도 굴하지 말고, 투쟁지침을 함께 지키며 끝까지 단결해 주십시오.**

회사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수록 더욱 강하게 뭉칩시다! 단결하면 승리하고, 분열하면 우리의 권리를 잃습니다! **우리가 하나로 뭉친다면 회사는 결코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.**

하나 된 원주지회! 흔들림 없는 단결!
끝까지 투쟁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하자!
2026년 임·단협 반드시 승리합시다!

2026년 10월 14일
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원주지회장 김택수

■ 2026 임 · 단협 투쟁 관련 만도지부 쟁대위 투쟁지침 ■
■ 투쟁 조직 건 ■
▶ 투쟁 실천단 : 각 구역별 2명 이내로 조직한다.
▶ 투쟁 위임장 : 전 조합원 대상으로 받는다.
■ 투쟁 방침 ■
▶ 투쟁 지침은 당일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.
▶ 잔업, 특근, 조출, 중식작업 등 연장근무는 10월9일(금) 부터 2026년 임·단협 타결 시까지 통제한다. 통제방법은 각 지회별 수립한다.
▶ 확대간부 주간전환 시기는 지부쟁대위에서 정한다.